한가위 추석 명절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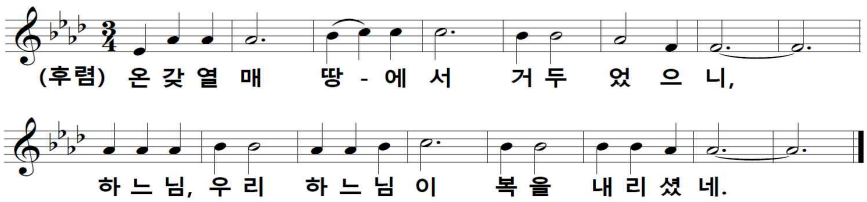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 요엘 2,22-24.26ㄱㄴㄷ

[화답송] ..... 시편 67(66),2와 4ㄱ.5ㄷ과 6.7-8 (◎ 7)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제2 독서] ..... 요한 묵시 14,13-16

[복음 환호송] ..... 시편 126(125),6

◎ 알렐루야

○ 뿌릴 시 들고 우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 루카 12, 15-21

[성가안내]

- 입당성가 [66] 주의 백성 모여오라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박 현진 스테파노	이 상돈 토마스, 김 연주 레아
박 현진 스테파노	연령회
이 창희 필립보	이 상돈 토마스, 김 연주 레아
이 창희 필립보	연령회
이 창희 필립보	민 정신 아폴로니아
신 순원 마리아	김 영빈 루시아

생미사	봉헌
진 정은 마리아	익명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그네스	민 정신 아폴로니아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칠순 축하)	민 정신 아폴로니아
윤 복흠 요한 (칠순 축하)	민 정신 아폴로니아
이 상돈 토마스 가족	민 정신 아폴로니아
이홍규 요한, 이로잔 캐더린 (영.육건강 위해)	이 미숙 안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9월11일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한서희 데레사	최예준 사도요한
9월18일	백이백 아오스딩	김규헌 프란치스코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한서희 데레사	양지수 글라라

● 9월 11일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 11:00 : 미사 , 뉴튼 수도원
- 보물찾기, 점심식사 : 미사 후
- 14:30 : 보물찾기 경품 수여 (32명)
- 14:45 : 풍물패 '신명' 공연
- 15:00 : 성경 신앙 OX 퀴즈 및 시상식 (3명)
- 15:45 : 마무리

●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노래로 하는 하느님 찬양은 두배의 기도'라는 어거스틴 성인의 말씀대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문 의: 노 데레사 917-692-6447

●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피아노 공하신 분
- 문 의: 이 카타리나 646-696-4680

● 예비자 교리반 수강 신청 받습니다.

- 대 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분들
- 문 의 : 2층 사무실
- 세례예정 : 2023년 예수 부활 대축일

● 2023년 견진 성사 신청 받습니다.

- 견진대상 : 2019년 이전에 세례받은 신자

● 제26차 2022 미동북부 성령대회

- 일 시 : 2022년 10월 1일 (토)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 소 : 메이플우드 성당
- 참가비 : $20(점심식사 포함)
- 신 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 상세 사항은 사무실 앞 게시판에 포스터 붙어있습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

[순교자 성월 기도]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우리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 (루시아)
이정주 (소화데레사)
정창동 (폴리나)
진정은 (마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이경희 (미카엘라)
김옥지 (아가다)
김동희 (헬레나)
지군자 (스테파니)
이진자 (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박명순 (모니카)

[2022년 9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사형제도 폐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상제 상서(上宰相書)

기해교난이(1839~1841) 한창 진행 중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론이라 볼 수 있는 상제상서가 성 정 하상 바오로에 의해 씌여졌다.

이것은 천주교의 교리가 참되고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우의정 조인영에게 알리고자 해서 *성 정하상이* 상서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조인영은 풍양 조씨로 기해교난을 일으켜 가톨릭교도의 탄압을 주도했으며 척사윤음 - 앵베르 주교, 샤스땅 신부, 모방, 정하상 등 70여명을 처형한 후 내린 교서- 을 찬양했던 인물이다. 후에 영의정에 올랐고 외세종교를 배척했으며 서원을 양성했다.) 부피가 3천 4백자 정도 분량 밖에 안 되지만 문장의 미려함, 논리의 명괘 정확으로 해서 조선 최초의 신학적 저작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것은 이 책자가 1887년 홍콩의 고 약망 주교에 의해서 출판 간행되어, 중국 선교에서나 신학 교육에 널리 이용된 것만 보아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문류된다. 첫째, 기독교의 교리를 풀어 밝히는 부분이다. 둘재, 호교 변증하는 부분이다. 셋째, 국왕에 대한 호소이다.

정하상의 '상제상서'는 황사영의 가톨릭 신앙과는 대조적이다. 황사영은 박해가 올 때 눈을 밖으로 돌려 구원을 요청했지만 정하상은 제 나라에 눈을 돌려 임금과 겨레에게 혈연으로 호소하고, 다 같은 인륜법도에서 천주교는 조선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과 충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이 불교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판했던 이유는 조선건국이념에 있다. 숭유사대, 즉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배척하며, 명나라를 존화하여 섬긴다는 것이었다. 불교는 무부무군이요. 이적 오랑캐다. 입산으로 출가하니 무부요, 입산으로 현실 도피하니 무군이며, 그 반면에 존화양이의 명분에서 볼 때에 불교가 명나라에서 연원하지 않으니 오랑캐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말과 조선 초의 척불론이 가톨릭교회가 도입될 대 그 배척의 근거로 둔갑하고 이 입장에 투철하게 서 있던 사람이 순암 안정복(1712-1791)이었다. 그는 74세에 천주교를 공박하기 위해 기독교계 저서들을 망라해 정독하고, 기독교역사와 문학을 연구한 뒤 '천학고'와 '천학문답'을 집필 발간해서 조선 유가의 기독교 배척의 전거노릇을 했다. 그는 이 저서들 속에서 기독교의 천당지옥설이나 신과, 영혼불멸, 장생, 영생의 사실을 역시 불가의 교리와 같다고 몰아 유교의 도에 벗어난다고 못을 박았으며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적 동일성을 억지로라도 드러내 보이려고 애를 썼다.
정 하상은 이 점을 착안 해 가톨릭 신앙은 불교와 같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불교를 비판했다.

1) 기독교가 현식적이요, 윤리적이다. 십계명을 보면 수신제가 치국의 이념에서 보아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 교회사를 폭 넓게 제시해서 안정복의 방법론에 반대했다. 기독교는 중국 오나라 시대에 전파되어 있었고, 주후 237년에는 철십자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당나라 경교가 상하조야에 널리 전파되어 있었고, 당나라 황제의 보호 아래 교회의 중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대 방한령을 비롯한 석학들이 서교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기독교가 오랑캐라고 주장하는 말의 부당성을 밝혔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앙의 정학 '공맹정주'에 빗나가지 않으며 '시서예락'의 정통고전과 다름없이 하늘을 섬기라 했다고 논증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인은 나라에 뜻을 잃은 자들이 아님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면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죄를 사대부에게 지을망정 하늘에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열의를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다. 황사영과는 매부의 관계에 있었던 정하상은 1839년 9월 22일 저녁 서소문 밖 형장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길을 떠났다. 그의 나이 45세였다.